

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2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 간사 위원님들께서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해당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김석기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건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 전투병 3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전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태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 대서양조약기구,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팀 활동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동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지난 18일 국정원 발표와 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약 3000명을 이미 파병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 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악관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분노하고 규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셋째, 북한은 파병으로 외화를 벌고 군사기술을 얻고 실전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파병 초기 단계의 정보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기 전에 국제 여론의 압박을 유도해서 파병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국회의 결의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시바삐 채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늘 통과시키게 된다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을 반대하는 우리 국회와 국민의 결의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영배 간사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0월 18일 날 국정원의 발표 이후에 민주당 국가안보상황관리위원회에서는 가장 먼저 규탄 입장문을 낸 바가 있고 민주당에서 후속적으로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외통위에 상정하자는 제안을 해 오셔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방향을 당연히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를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개최하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정한 안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병합심사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촉구 결의안은 우리 법안소위로 넘겨서 법안

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좀 거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지금 여야 간사님께서 대표로 대체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여야가 공히 결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의를 해 준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청년들이 명분 없이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고 또 이번 북한군 파병을 통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심 미사일 기술 등을 전수받게 될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금번 북한 파병이 향후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북한의 침략 전쟁에 러시아도 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이 결의안 처리를 오늘 하자 또 법안소위에 넘기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성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점이 유감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염중함을 직시해서 해당 결의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예정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체회의는 마치고 바로 종합 국정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1인)

권칠승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안철수 위성락
윤상현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